

광주과학기술센터, 장애인 시설 방문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는 23일 광주 북구 지아동에 있는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원장 손찬영)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 활동을 펼쳤다.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제공>

건협 광주전남지부, 군인 금연성공 파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강선규)는 최근 공군부대 생활관에서 공군부대 대원들을 위한 금연성공파티를 실시했다. <건협 제공>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 개소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치매국책연구단 광주센터(센터장 이근호)가 23일 조선대 의과대학 한마음홀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조선대 제공>

NH농협 순천시청출장소, 양 저금통 배포



NH농협 순천시청출장소는 24일 고객과 공직자에게 양(羊) 저금통 500개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이색 캠페인을 펼쳤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정성”을 찾는 이 있어 대장간 떠날 수 없죠”

## 대장장이로 60년...광주 신광철공소 최춘식 대표

칼 만드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  
돈보다 사람 먼저...정직한 물건 찾으러 제주에서도 방문



노력한다면 누구나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장에서 만난 신광철공소 최춘식(74) 대표는 대장장이다. 그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선 망치질이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덕에서 발갛게 달아온 쇠덩어리를 꺼내 문득한 망치로 세차게 내리치는 그의 입에서는 새하얀 김이 연신 쏟아져나왔다. 영하의 날씨에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물론 잔뜩 움츠리고 좌판을 지키는 상인들마저 고요한 순간에도 철공소에는 쇠물의 열기와 망치 내리치는 소리가 넘쳤다.

13평 남짓한 공간을 가득 메운 낫, 호미, 삽, 곡괭이. 그보다 더한 세월의 흔적을 품은 화덕에는 그늘음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최씨가 상처와 굶은 살 가득한 손으로 만든 칼은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칼날만큼은 하나같이 예리했다. 대장장이가 밝히는 비결은 ‘정성’이었다.

“대장간에서 그늘음을 뒤집어 쓰고 칼을 만들고 있으면 허드렛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농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장간을 찾는 발걸음이 뜰수록 더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무슨 옷을 입고 일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가 만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최 대표는 칼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생산자가 판매자에게 전담하고, 판매자가 또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물건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를 찾는 손님들은 수십 년 단골이 대부분이다. 대장간에서 가져간 물건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처럼 잘 아는 사이에서 대장간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값싼 중국산 농기구가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대장장이가 화덕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장장이가 망치를 든 것은 ‘칭찬’ 때문이었다. 6·25전쟁



최춘식 대표는 화덕에서 달궈진 칼날을 망치로 수없이 내리치고 다듬기를 반복한지 20여 분 만에 고개를 고덕이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다.

직후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 중학생이던 그는 고모부가 운영하던 대장간에 자주 놀러갔다.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대장간 일을 배워서 월산동, 대인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대장장이가 됐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는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전성기를 맞았다. 직원 네 명을 두고 망치질을 할 정도로 호황이었다. 광주는 물론 목포와 제주도에서도 그가 만든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문 때문에 최 대표가 판매만 전담해도 벼락 지경이었다.

오 남매를 출가시키는 동안 대장간의 위치

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최씨는 불 옆을 떠나지 않았다. 대장간을 찾는 이들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는 묵묵히 불 옆을 지키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대장장이가 됐는데, 이제 대장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한때 가정을 꾸린 자녀들이 대장장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 정직한 물건을 만들고 뜻있게 판매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해주길 바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더욱 힘을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 “학생들 섬기는 마음으로” 산타가 된 선생님

## 광주 경신중 교직원 등교길 이벤트 열어

광주경신중학교(교장 최재룡)는 성탄절 전날인 24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경신중학교는 매년 성탄절 전날 아침이 되면 1년간 공부하느라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아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교직원들이 미리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직원들의 깜짝 변신은 계속됐고, 산타 모자를 쓴 선생님의 모습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잔뜩 움츠린 모습으로 등교하던 학생들은 산타 모자를 쓴 교직원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학생회장인 황송연 군은 “특별한 기대 없이 평상시처럼 등교하다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운 날씨에도 선생님들이 아침 일찍 직접 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라고 기뻐했다.

올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최재룡 교

장은 “예수처럼 우리 교직원들도 학생들을 섬기고자 한다는 진심을 선물과 함께 전하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문종민 과장

### ‘문학예술’ 수필부문 당선



문종민(58)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이 수필작가로 문단에 등단했다.

문 과장은 종합문예지 ‘문학예술’에 공모한 ‘국밥의 추억’이 2014 신인상 수필부문에서 당선됐다.

장흥을 대덕면 출생인 문 과장은 장흥에서 처음 맞은 국밥의 추억과 풍경, 정취를 담담한 필치로 그려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릿고개는 숨쉬기도 버겁게 남아야 할 태산’이라고 표현하는 등 1960년대의 삶을 글로 풀어냈다.

문 과장은 “국밥의 추억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다”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고 넉넉하게 표현하면서 살라는 격려로 여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인사

◆인문재위원회

◇전보 ▲안백수 광주사무소장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동창회

▲광주 송일고 총동문회(회장 김창남) 송일인의 밤=30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3층 연회장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송년의 밤=30일(화) 오후 6시30분 라페스타웨딩홀(광주도시절도 농성역 앞)

### 알림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융합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협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조 062-

232-131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모집

▲설원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희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010-2727-128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 부음

▲김옥실씨 별세 이병관·병호씨 모친 상 문용숙·강남희씨 시모상=발인 25일

(목)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한기택씨 별세 한세준(조선대병원)·석준(SK건설)·명순·명자·명옥씨 부친상 박애순·이지혜씨 시부상 오영현씨 부부상=발인 26일(금)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1

<p><b>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p>	
<p><b>101호 故양재형 남(남/54세)</b>          子/子婦: 양재준, 양향민 女: 양은혜          未亡人: 이비숙          *발인: 12월 2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p>	<p><b>102호 故송정철 남(남/67세)</b>          子/子婦: 송박영/주미란 未亡人: 구덕효          女/婿: 송주란/장종민, 송주영/김석호, 송주희          *발인: 12월 26일          *장지: 화산유선영 *연락처: 227-4386</p>
<p><b>201호 故김종길 남(남/65세)</b>          子/子婦: 김윤근/유혜선 未亡人: 박근자          女/婿: 김명숙/신건수, 김은숙/서은호, 김명은/안정호          *발인: 12월 25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1</p>	<p><b>301호 故주영자 남(남/72세)</b>          子/子婦: 박철민/정모라, 박철만/오미란          女/婿: 박정하/김성문          *발인: 12월 25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p>
<p><b>402호 故최창수 남(남/65세)</b>          子/子婦: 최영수/임수미, 최영만/안미경 女/婿: 최미경/박민수, 최화영/양동철          *발인: 12월 26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p>	
<p><b>孝 金호장례식장</b>          http://www.mykumho.com</p>	
<p>문의 (062)227-4000</p>	